

임플란트 보철시술시 발생하는 심미적 문제점과 해결방법

임주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연자약력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단국대학교 보철과 수련
 단국대학교 치의학박사
 단국대학교 보철학교실 조교수
 대한치과보철학회 이사
 대한악기능교합학회 연구이사

Brånemark이 골유착(osseointegration) 개념을 보고한 이래 치과용 임플란트의 많은 발전 및 임상적 적용이 이루어져 왔다. 단일 치아 수복은 물론, 부분무치악 및 전부무치악 환자에서도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가철성 보철물의 단점을 극복함으로써 환자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임플란트 개발 초기의 최대 관심사는 임플란트 고정체의 재료, 형태 및 표면처리 등에 따라 얻어지는 골유착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외과적 시술과 관련된 여러가지 요인들이 임플란트 초기고정 및 장기적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달라진 바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임플란트 식립후 수개월 이후에 골과 임플란트 고정체간의 견고한 골유착이 발생됨으로서 얻어지는 단순한 저작기능의 회복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골유착 성공률이 높은 임플란트가 많이 소개되어 오고 있으며, 이제는 골유착을 얻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되었다. 오래전부터 Albrektsson과 Zarb 등에 의해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 문헌상에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로 임플란트 보철의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한 저작기능 회복의 관점에서만 언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자 하는 심미적 욕구가 증진되고 있다. 이에 임플란트 보철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Standard 형태의 상부 abutment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 Estheticone, UCLA type, Comical, Anatomical 및 Angulated abutment 등이 소개되었으며, 최근에는 좀더 심미적인 emergence profile을 얻기 위한 wide abutment 및 심미적인 색상을 얻기 위한 Ceradapt 등이 소개되고 있다.

임상적으로는 어떤 종류와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부정확한 시술계획이나 환자의 골양 및 형태 등에 따라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고정체가 식립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골유착면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보철시술후 발생하는 비심미적인 결과를 고려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공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시 부적절한 식립 위치 및 방향으로 고정체가 식립되는 원인과, 실제로 잘못 식립된 경우에 보철적으로 심미성을 최대한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임상증례를 통해 살펴보고, 심미적으로 보다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